

그레마스 기호학을 이용한 서사 분석의 문제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주형일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논문은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해 〈겨울왕국〉의 서사 분석을 한 기존 논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겨울왕국〉의 심층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행위소 모델과 기호사각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분석을 했다. 그레마스의 방법을 엄밀히 이용한다면 〈겨울왕국〉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된 것과는 달리 엘사가 아닌 안나의 영웅 서사임이 드러난다. 서사구조 안에서 안나와 엘사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안나의 성공은 사실상 엘사의 실패이다. 따라서 〈겨울왕국〉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남성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젠더 재현에 있어서 전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겨울왕국〉은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체제 순응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

KEYWORDS 겨울왕국, 기호학,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 기호사각형

1. 문제 제기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 2014년 1월 개봉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천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한 <겨울왕국>의 성공 이유와 의미를 분석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했다. 그 논문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 중 특히 동일한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논문들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한국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기호학 방법은 학부와 대학원 교육에서 다루지는 대표적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주로 신문기사, 영화, 광고, TV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특히 바르트, 그레마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잘못 사용한 논문들이 다수 출판돼 다른 교육이나 연구의 참고문헌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문제를 지적하고 학계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를 느꼈다.

영미권에서는 <겨울왕국>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흥행에 크게 성공했기 때문인지 <겨울왕국>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커져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문이 2016년 1월 현재 무려 22편이나 발표됐다. 이들 중 표현 기법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수용자의 태도나 해석에 대한 논문들을 제외하고 텍스트 자체의 내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분석한 논문은 12편이다. 이 논문들 중 <겨울왕국>을 자기성장의 관점에서 보거나(정기철, 2014), <눈의 여왕>과의 이야기 형태를 비교한 논문(김보현, 2015), 캐릭터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한 논문(양세혁, 2014), 애니메이션의 환상성이란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한 논문(이혜원, 김민정, 2014)을 제외한 논문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 논문들은 안나와 엘사라는 두 명의 여성 캐릭터를 통한 젠더 재현에 관심을 보이며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겨울왕국>을 분석했다. 그것들은 특히 엘사 캐릭터의 재현에 주목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이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과는 달리 결국에는 남자와의 사랑에 의존하게 되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찾아가는 여성을 보여 줌으로써 기존 애니메이션의 남성 지배적 담론을 전복시키거나 변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 논문들은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 텍스트 분석에 의존한다. 일부는 특별한 분석틀 없이 표면적 서사를 기술하는 인상비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인상비평 식의 논문들은 저자의 주관적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문들이

내적 논리의 정교한 구성을 통해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 주장을 펼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주장을 참고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논문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은 서사구조를 밝히는 독립적 분석틀이기 때문에 방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서 분석에 오류가 있다면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는다. 나는 <겨울왕국>에 대한 기호학 논문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들이 인용한 이론들과 전개한 논의가 아무리 심오하고 정교하다 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분석이 잘못돼 있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1+2=4$ 라고 계산한 후 그렇게 도출된 4의 의미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한 꼴이기 때문이다.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논문들이 이런 치명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별다른 여과 없이 출판됐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기존의 논문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들의 분석을 재검증하고 문제를 지적한 후에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겨울왕국>의 심층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 결과에 있어서 그 논문들과의 차이를 보여 주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의 결함을 가진 기호학 연구들이 학계의 무관심 속에서 출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겨울왕국>의 심층 서사구조를 밝히는 작업임과 동시에 그레마스의 서사 분석 방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2. 그레마스 기호학의 서사 분석틀의 특성

<겨울왕국>은 미국의 대표적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이다.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미국의 지배적 가치 체제에 순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선우현, 2008).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특히 왕자와 공주의 환상적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특히 애니메이션이 젠더 역할을 재현하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젠더 역할이 어떻게 재현돼 왔는가를 살펴본 연구들(England et al., 2011; Garabedian, 2014)에 따르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젠더 역할의 재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특히 여성 역할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초기 애니메이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남성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재현됐으나, 최근 애니메이션에서는 점차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더는 남성을 구원자로서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 여성으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이 강인하고 적극적인 모험을 즐기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최유미, 2008; 김미숙, 2013).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겨울왕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젠더 재현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겨울왕국〉이 새로운 여성상을 재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젠더 재현 관점에서 〈겨울왕국〉을 분석한 논문이 무려 여덟 편이 발표됐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그동안 애니메이션에서 부정적으로 재현돼 왔던 마녀를 통치력을 가진 주체적 여성으로 복권시키고 이성 간의 사랑이나 단순한 가족애를 뛰어넘어 공동체적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거나(이윤종, 2014), 여성 사이의 우정이나 연대를 통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거나(오동일, 최혜림, 2014), 불완전한 마녀인 엘사가 안나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진정한 자유와 정체성을 찾는 것을 보여 주거나(강은진, 2014), 남성의 위협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힘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성들의 모습을 재현하거나(강준수, 2015), 엘사와 안나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로 고정되지 않고 수행성을 통해 변하는 퀴어적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재현되거나(이준수, 2015), 통치 욕망을 가진 남성적 성향의 엘사와 주체적 여성인 안나가 남성 의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면서 젠더 수행적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을 재현한다(이란, 백선기, 2015).

이런 주장들이 연구자들 나름대로의 주관적 해석일 경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주장이 단순한 인상비평이나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분석에 근거를 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겨울왕국〉의 의미를 분석한 논문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세 편이다. 그레마스의 방법은 연구자 개인의 사회문화적 속성의 영향에서 최대한 벗어나 기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레마스 자신이 그의 방법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주관적 요인들을 텍스트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Greimas, 1986, pp. 153~171). 이를 통해 그는 텍스트 해석을 연구자 개인의 관점에 의해 구성되는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기호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객관적 해석으로 만들려 했다. 따라서 인상비평에 의한 주관적 해석과는 달리 그레마스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경우는 분석 방법의 오류나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텍스트의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그레마스의 방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사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은 6개의 행위소(actant)¹⁾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행위소 모델(modèle actantiel)과 기호사각형(carré sémiotique) 분석이다. 이 분석방법들은 교과과정을 통해 강의되고 있고 여러 개론서들이나 논문들을 통해 수없이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²⁾. 그런 도구적 설명보다는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관통하는 핵심적 생각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핵심적 생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만 행위소 모델이나 기호사각형 같은 분석틀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으로 다룰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분석틀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분석틀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레마스는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생성된다고 봤다. 그레마스의 이런 생각은 소쉬르(Saussure)의 언어학 개념들을 기반으로 한 구조주의의 관점에 충실한 것이다. 소쉬르로부터 시작해 구조주의 사상을 관통해 흐르는 기본적 생각은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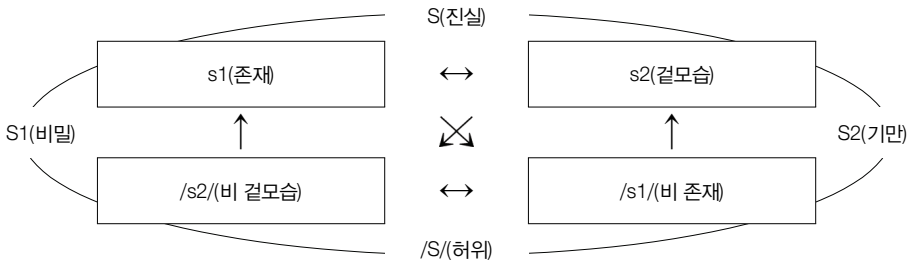
첫 번째, 어떤 기호(단어 혹은 텍스트)의 의미는 기호 체계 안에 있는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요소들 사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나라’는 단어가 특정한 의미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이 다른 단어, 즉 ‘너’라는 단어와 발음이나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나라’는 소리나 형태 자체에 어떤 의미가 내재해 있어서가 아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두 요소들 사이의 차이라는 점에서 이항적 속성(binarity)을 갖는다.

두 번째, 기호의 체계는 표층에서 심층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 층위를 갖는다. 표층에 드러나는 의미들은 심층에 있는 기본적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 파생된다. 표층의 의미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해 보여도 그것들을 파생시키는 심층의 관계, 즉 구조는

1) 행동자, 행위주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2)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도(2002)와 Hérault(1983/2003)를 볼 것. 이 방법은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 방법을 세세히 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논문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연구방법의 개념들을 세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양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질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경우에만 유독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회귀분석 방법의 개념들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는 논문은 없다. 왜냐하면 논문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민속지학 방법, 구술사 연구방법, 기호학 방법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논문에서 세세히 소개하는 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표 1. 기호사각형



단순한 도식으로 환원될 수 있다. 표층의 의미는 우발적이고 상황중속적일 수 있지만 심층의 구조는 추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표층의 의미는 여러 요소들의 선형적 배열을 통한 통합체 구조(syntagmatic structure)에 의해 드러나지만, 통합체 구조 자체는 심층에 있는 기본 요소들의 계열체 구조(paradigmatic structure)에 의해 발생한다.

구조주의의 이 두 가지 핵심적 생각을 바탕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분석틀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우선 기호사각형은 서로 대립하는 두 요소들 사이의 차이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s1과 s2라는 의소(seme)의 대립항이 결합함으로써 S라는 의미단위(의미소)가 만들어진다. s1과 s2의 논리적 모순항인 /s1/과 /s2/도 서로 대립하는 의소이며 역시 결합을 통해 /S/라는 의미단위를 구성한다. /s2/는 s1을 내포하는 관계이고 /s1/는 s2를 내포하는 관계로 각각 S1과 S2라는 의미단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존재(être)와 겉모습(paraître)이란 의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호사각형은 진실(vérité), 허위(fausseté), 비밀(secret), 기만(mensonge)과 같은 의미단위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Greimas & Courtés, 1993, p. 32).

이 기호사각형은 계열체 구조로서 또 다른 계열체 구조인 행위소 모델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 구조이다. 행위소 모델 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행위소 모델은 주체, 대상, 발신자, 수신자, 조력자, 반대자라는 6개 행위소들의 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서사구조를 드러낸다. 행위소들은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조력자와 반대자라는 이항대립적 행위소들로 구성돼 있다. 하나의 행위소는 다른 행위소와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주체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체로 기능한다.

행위소는 선형적 텍스트의 구체적 행위자들(acteurs)이 서사 속 기능에 따라 계열별

로 분류된 결과로 드러난다. 텍스트 안에서 행위자들은 구체적 상태로 존재하거나 특수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들의 상태나 행위가 서사에서 행하는 기능에 따라 적합한 행위소로 분류된다. 행위소는 비선형적 계열체의 요소이기 때문에 선형적 통합체의 관점에서 행위소 모델에 접근하면 잘못된 행위소 모델을 도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안에서 어떤 행위자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주체-행위소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자가 주체-행위소로 분류되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을 원하거나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여러 통합체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그의 상태나 행위가 대상-행위소나 반대자-행위소 등의 기능과 대립하는 주체-행위소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관통하는 이런 핵심적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구적으로 기호사각형과 행위소 모델을 이용했을 경우 텍스트의 심층에 있는 계열체 구조를 밝혀낼 수 없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논문들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그것들의 문제를 지적한 후,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적합하게 적용했을 경우 도출되는 〈겨울왕국〉의 서사구조와 심층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런 검증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 〈겨울왕국〉의 서사구조 분석

1) 기존 분석의 문제

많은 연구들에서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그레마스의 서사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긴 이야기를 의미작용의 최소 단위들로 분해해 구조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서사구조를 명확히 드러내고 심층 의미를 발견해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왕국〉은 비교적 단순한 영웅 서사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마스의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기 적합한 텍스트이다.

그레마스의 서사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기능들의 연쇄로 분해한 후 각 기능들을 6개의 행위소로 분류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행위소 모델을 수립하고 설화 프로그램(programme narratif)을 도출한 뒤,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의소들을 추출하고 난 후 기호사각형 분석을 통해 심층 의미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법을 이용해 〈겨울왕국〉을 분석한 논문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강은진(2014)은 각각 안나와 엘사를 주체로 설정한 두 개의 행위소 모델을 도출한다. 그 모델에 따르면, 안나는 엘사와의 관계 회복을 욕망하는 반면에 엘사는 자유와 완

표 2. 엘사의 행위소 모델(강은진, 2014,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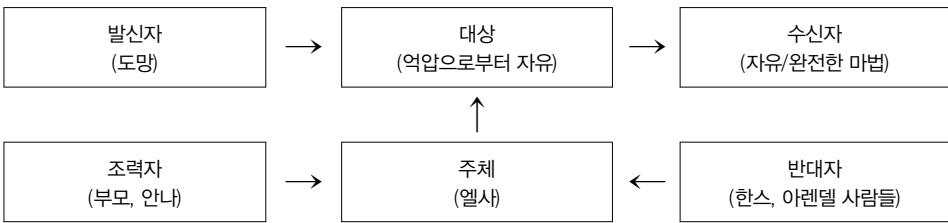


표 3. 안나의 행위소 모델(강은진, 2014,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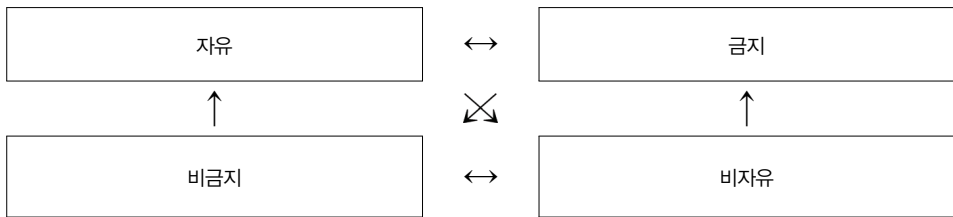


전한 마법 능력의 획득을 욕망한다. 하지만 강은진의 행위소 모델들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안나와 엘사의 모델 모두 발신자와 수신자의 설정이 잘못돼 있다. 엘사의 모델에는 조력자와 반대자 향도 잘못돼 있다. 애초에 엘사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은 부모였기 때문이다. 또 안나가 엘사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은진의 연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서사 전체를 구성하는 행위소 모델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면 서사를 지배하는 주체-대상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텍스트 전체에서 안나가 욕망하는 대상이 '언니와의 관계 회복'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안나가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나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를 욕망했다. 그들 중 어떤 것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가는 요소인지를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 엘사의 경우에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욕망의 축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엘사가 자유를 욕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겨울왕국> 이야기의 중심인 주체-대상의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안에서 행위자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무조건 주체라는 행위소가 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행위소 모델에 대한 분석이 엄밀하지 못하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 4. 〈겨울왕국〉의 기호사각형(강은진, 2014, 45쪽)



도출된 기호사각형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최종 기호사각형은 행위소 모델 등을 기반으로 도출되어야 하지만 강은진은 별다른 근거 없이 〈겨울왕국〉의 최종 기호사각형을 자유 vs 금지의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강은진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겨울왕국〉을 엘사의 영웅 서사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호사각형에 따르면, 〈겨울왕국〉의 전체 이야기는 엘사가 금지된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최종적으로 엘사가 자유를 찾음으로써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심층 의미를 구성하는 의소가 자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라는 의소로 〈겨울왕국〉의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려 한다면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겨울왕국〉 이야기에서 자유를 다루는 시퀀스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가 〈겨울왕국〉 서사의 심층 의미를 구성하는 의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각 의소들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어떤 의미단위가 구성되는지도 분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강은진의 기호사각형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완전하지 않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 시퀀스 분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행위소 모델 분석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엘사가 〈let it go〉를 부르는 장면은 〈겨울왕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무척 인상적인 장면이지만 그것이 전체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런 표면적 이야기에 영향 받지 않고 전체 서사의 심층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표 5. 엘사의 행위소 모델(성례아, 김혜성, 2014, 2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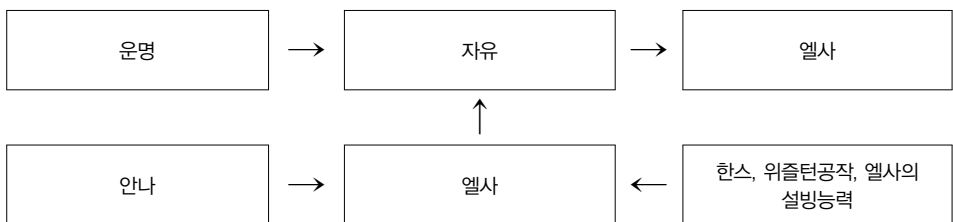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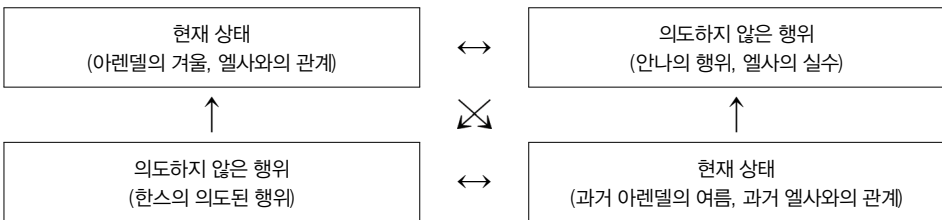


표 6. 안나의 행위소 모델(성례아, 김혜성, 2014, 207쪽)



표 7. <겨울왕국>의 기호사각형(성례아, 김혜성, 2014, 213쪽)



성례아와 김혜성(2014)은 보다 꼼꼼하게 그레마스의 방법을 적용해 <겨울왕국>을 분석했다. 그들도 안나와 엘사를 각각 주체로 설정한 두 개의 행위소 모델을 도출해 냈다. 성례아와 김혜성이 도출해 낸 행위소 모델에서 발신자가 모두 운명이란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외의 다른 행위소들의 설정은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행위소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강은진의 것과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의 핵심적 주체-대상 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성례아와 김혜성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기호사각형은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구성됐다. 그들이 제시한 기호사각형은 핵심 의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호사각형이 아니라 단순한 사각형 모양의 관계도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이 사각형을 바탕으로 <겨울왕국>의 심층 의미를 좋았던 과거로의 회귀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겨울왕국>이 흥행한 원인을 바로 힘들고 불안한 현재에서 벗어나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대중의 심리에서 찾았다.

이란과 백선기(2015)의 경우에는 행위소 모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여러 요소들에 대한 기호사각형을 만들어 제시한다. 그들은 시공간의 기호사각형 분석, 엘사 캐릭터의 기호사각형 분석, 안나·엘사·남성과의 기호사각형 분석을 차례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것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항대립 요소들을 단순히 시각화한 것일 뿐이지 기호사각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이항대립 요소들을 기호사각형의 형태로 시

표 8. 엘사의 표층 행위소 모델(이란, 백선기, 2015, 1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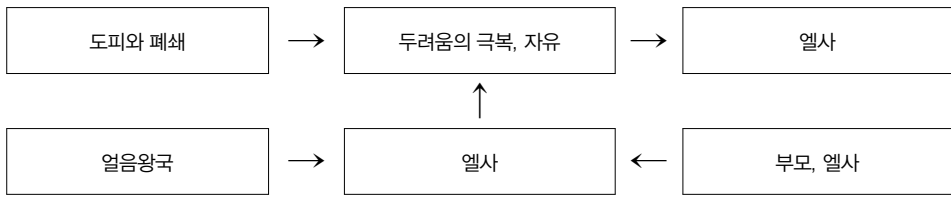


표 9. 엘사의 심층 행위소 모델(이란, 백선기, 2015, 196쪽)



표 10. 안나의 행위소 모델(이란, 백선기, 2015, 198쪽)



각화해 보여 줬을 뿐이다. 기호사각형은 단순한 이항대립 요소들의 쌍이 아니라 텍스트의 심층 의미가 형성되는 기본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한 기호사각형은 기호사각형 형태를 갖추었을 뿐 기호사각형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후 그들은 행위소 모델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납득하기 힘든 모델을 제시한다. 엘사와 안나를 각각 주체로 하는 행위소 모델을 제시하면서 엘사의 경우에 표층의 행위소 모델과 심층의 행위소 모델을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안나의 경우에는 그런 구분 없는 행위소 모델을 제시한다.

행위소 모델은 그 자체가 텍스트의 심층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엘사의 행위소 모델들을 보면 표층과 심층 사이의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논문에는 엘사라는 주체가 ‘두려움의 극복과 자유’라는 대상을 추구하는 것과 엘사라는 주체가 ‘여왕자격의 획득’이란 대상을 추

구하는 것이 어떻게 표층과 심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제시돼 있지 않다. 이란과 백선기(2015)의 주장대로 엘사가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의 극복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속에는 여왕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다(196쪽)고 인정하도록 하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소 모델은 그것을 구분하는 도구가 아니다. 행위소 모델은 행위소들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서사가 만들어지는 기본 틀을 밝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행위소 모델에는 표층과 심층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표층의 행위소와 심층의 행위소를 구분해야 하는데 행위소 자체가 행위자들의 기능을 추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그레마스의 서사 분석 방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심층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레마스 서사 분석 방법을 정확히 이용하지 않고 단지 행위소 모델이나 기호사각형과 같은 잘 알려져 있는 분석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통합체 구조를 분해한 후에 기능별로 분류해 행위소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야기의 표면적 층위에서 드러난 행위자들 중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체, 대상, 조력자, 반대자, 발신자, 수신자를 적당히 찾아 배열하는 방식으로 행위소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행위소 모델이 정작 이야기의 심층 구조를 발견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호사각형을 만들 때도 단순히 이항 대립이 가능한 개념들을 발견해 반대항과 모순항들을 배열하는 식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심층 의미를 구성하고 표층의 의미단위들을 발생시키는 의소의 관계도로서의 기호사각형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위에서 검토된 논문들뿐만 아니라 그레마스의 방법을 이용한 다른 논문들에서도 행위소 모델과 기호사각형은 서사의 심층 의미를 도출해 내는 핵심적 도구가 아니라 서사의 표면적 층위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장식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³⁾. 가혹하게 평가하자면, 이 논문들은 가능한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호학 방법을 적용해 서사의 심층 구조와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인상비평적인 주관적 해석을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기호학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퐁젤>을 그레마스 기호학을 이용해 분석한 신혜원, 백선기(2014)의 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인다. 그 논문에서 제시된 행위소 모델과 기호사각형도 이야기의 표면적 층위만을 그려내는 장식품일 뿐 심층의 핵심적 주체-대상 관계와 서사 행로를 밝히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2) 〈겨울왕국〉의 서사구조에 대한 새로운 분석

일반적으로 영웅 서사는 한 영웅이 임무를 부여받고 여러 자격들을 획득한 후 시련을 겪으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를 갖는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가 영웅의 행동에 의해 다른 상태로 변하는 이야기이다. 영웅 서사는 주체가 대상을 잃은 상태에서 대상을 획득한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핍과 불균형의 상태에서 충족과 안정의 상태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SUO) → (SNO)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주체와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서사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은 바로 이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레마스의 방법이 구조주의로 분류되는 이유는 주체와 대상이 이미 주어져 있는 고정된 실체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되는 관계적 요소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주체는 대상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지며 대상도 주체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대상 없이는 주체가 있을 수 없고 주체가 없이는 대상도 있을 수 없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주체는 대상이 주어질 때 비로소 형성된다. 다시 말해 어떤 계기에 의해 대상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주체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영웅 서사가 시작된다. 이때 대상을 주는 것이 바로 발신자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발신자가 준 대상을 주체가 대상으로 인식하고 욕망하게 될 때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무엇인가를 욕망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주체-행위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욕망과 행위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행위자들은 여섯 개의 행위소로 구분된다. 이야기가 시작해서 끝이 나는 과정을 기본적 기능들 사이의 관계로 환원시킨 것이 바로 주체, 대상, 발신자, 수신자, 조력자, 반대자라는 6개의 행위소로 구성된 행위소 모델이다. 행위소 모델을 말로 풀어 본다면 이렇게 된다. 주체는 발신자가 제시한 대상을 욕망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행동을 돕는 조력자와 방해하는 반대자가 나타난다. 결국 주체가 대상을 획득하게 되면 그 행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수신자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겨울왕국〉의 이야기를 행위소 모델로 구조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핵심적 주체-대상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겨울왕국〉에서 주체의 기능을 할 만한 주요 행위자는 네 명이다. 안나, 엘사, 한스, 크리스토프가 그들이다. 이들 중 이야기를 시작시키고 끝내는 주체-행위소가 있다. 각각의 행위자들이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열거해 보자. 먼저 안나가 욕망하는 것은 엘사와의 관계 회복, 한스와의 결혼, 집 나간 엘사의 귀환, 아렌델의 해빙, 진정한 사랑의 키스 등이다. 엘사가 욕망하는

것은 마법 능력의 제어, 모범적 여왕직에서의 해방 등이다. 한스가 욕망하는 것은 아렌델의 왕위이다. 크리스토프가 욕망하는 것은 안나와의 사랑이다. 이들 중 한스와 크리스토프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한스는 대상을 얻는 데 실패하고 크리스토프도 자신의 행동으로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의 부수적 산물로서 얻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안나와 엘사만이 주체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안나를 살펴보자. 안나가 욕망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엘사와의 관계 회복이나 엘사의 귀환을 바라는 것, 한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것, 아렌델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은 모두 사랑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나가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바로 사랑이다. 실제로 안나는 텍스트 안에서 계속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한다. 한편 엘사가 원하는 것은 자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마법 능력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대로 마법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틀에 박힌 모범적 여왕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안나와 사랑, 엘사와 자유는 모두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체-대상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주체-대상 관계인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시작시키는 최초의 결핍, 혹은 최초의 금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결핍이나 금지로부터 대상에 대한 욕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겨울왕국〉 이야기에서 최초의 결핍과 금지는 무엇인가? 다시 표현하자면, 최초의 결핍과 금지를 유발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은 어린 시절 안나와 놀던 엘사가 실수로 마법의 힘으로 안나의 머리를 맞춘 일이다. 의식을 잃은 안나를 치료해 준 트롤은 엘사가 마법을 쓴다는 사실을 안나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엘사에게 두려움이 그녀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사건 때문에 엘사의 부모가 왕궁의 문을 폐쇄하고 마법을 쓰는 것을 금지하면서 엘사는 안나와의 만남을 피한 채 홀로 생활하게 된다. 어린 시절 엘사와 놀던 행복한 기억을 가진 안나는 냉랭해진 왕궁의 분위기와 단절된 엘사와의 관계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최초의 사건으로 인해 안나는 사랑을 잃고 엘사는 자유를 잃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최초의 결핍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나와 엘사 중 누가 핵심적 주체-대상 관계의 행위소가 될지 드러나지 않는다.

최초의 결핍에 의해 발생했지만 아직 잠재돼 있던 대상이 확실히 드러나면서 주체의 행동을 촉발시키게 되는 결정적 사건은 엘사의 대관식 날 발생한다. 한스와 결혼하겠다는 안나와 말다툼을 하던 엘사가 마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용한 후 아렌델을 떠난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금지가 위반된 사건으로 본격적인 영웅 서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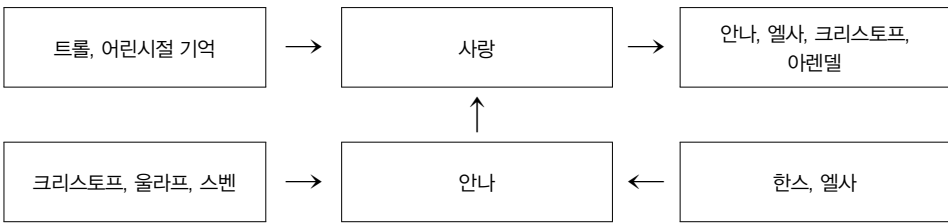
사건은 안나와 엘사의 서사적 지위에 근본적 차이를 가져온다. 아렌델을 떠난 엘사는 산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를 얻는다. 엘사는 모습을 바꾸고 자신의 성을 건설한 뒤 자유를 얻은 것에 만족한다. 이후 엘사는 자유를 위협하는 타인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 어떤 능동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엘사는 자신이 욕망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의 추동력을 잃은 것이다.

반면, 안나는 엘사가 떠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고 결핍을 메우기 위해 길을 떠난다. 안나가 대상에 대한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주체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안나가 사랑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들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안나가 자신을 희생하는 궁극적 행위를 통해 사랑을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모든 이의 행복을 보상으로 얻고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행위소 모델의 주체-대상 관계는 바로 안나와 사랑의 관계이다. 안나가 주체 기능을 하는 행위소 모델이 전체 서사구조를 보여 주는 모델인 것이다. 엘사는 〈겨울왕국〉의 서사구조를 설명하는 행위소 모델의 주체 기능을 할 수 없다. 엘사는 산으로 올라가 자신의 성을 지으면서 자유를 얻은 후 다른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으며 어떤 능동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주체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존의 연구들에서 안나와 엘사를 각각 주체로 하는 두 개의 행위소 모델을 도출해 낸 것은 표면적 이야기와 심층 구조를 구분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엘사의 이야기는 안나의 이야기에 비해 시청각적으로 훨씬 화려하며 더 큰 정서적 충격을 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야기의 표면적 층위에서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가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심지어는 엘사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겨울왕국〉의 의미를 해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엘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심층 의미를 설명하려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서사구조를 분석해 보면 심층 의미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겨울왕국〉의 행위소 모델은 〈표 11〉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겨울왕국〉은 엘사가 아니라 안나의 영웅 서사이다. 그것은 사랑의 결핍을 간직한 안나가 엘사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나 시련을 겪은 후 사랑을 획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영웅 서사이다. 이 영웅 서사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건의 기억이 트롤에 의해 지워지게 된 안나는 이해할 수 없는 엘사의 냉대 속에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성장한다. 하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안나는 끊임없이 엘사와의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엘사가 떠난 후 그녀를 찾아 나선 안나는 크리스토프, 눈사람 올라프, 순

표 11. <겨울왕국>의 행위소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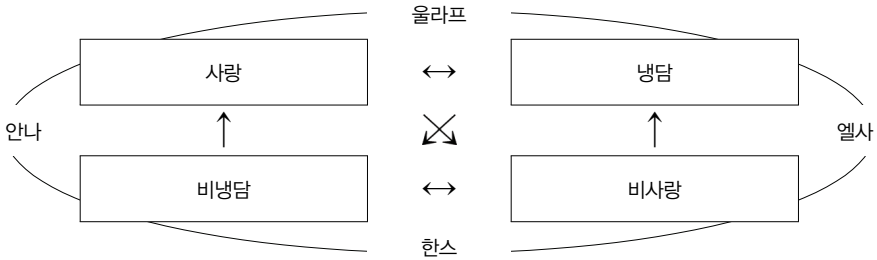


록 스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엘사를 다시 찾고 사랑을 얻고자 하지만 한스의 방해와 엘사의 저항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다가 엘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사랑을 획득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이야기 안에서 안나가 경험하는 사랑은 세 가지이다. 엘사와의 사랑, 한스와의 사랑, 크리스토프와의 사랑이 그것이다. 한스와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으나 거짓된 것으로 밝혀지는 사랑이고, 크리스토프와의 사랑은 사랑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엘사와의 사랑은 원래 갖고 있었으나 억압돼 잠재적인 사랑으로 머물던 것이다. 이 세 사랑의 정체는 이야기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꺼번에 폭로된다. 한스의 사랑이 거짓이란 것이 폭로되면서 안나는 크리스토프와의 사랑을 깨닫지만 엘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애초에 억압됐던 사랑을 해방시킨다. 안나의 마지막 자기희생 행위는 엘사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아렌델로 돌아와 모범적 여왕이 되도록 만든다. 결국 안나는 모든 사랑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아렌델을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며, 그 보상으로 자신의 생명을 되찾고 엘사와 크리스토프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겨울왕국>의 심층 의미를 구성하는 의소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여러 이항대립 요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밝은 안나 vs 냉담한 엘사, 여름 vs 겨울, 따뜻함 vs 차가움, 태양 vs 눈, 물 vs 얼음 등의 이항대립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이항대립을 중개하면서 이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캐릭터가 바로 올라프이다. 올라프는 눈사람이면서도 여름과 태양, 따뜻함을 갈망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 준다. 그는 안나가 엘사를 찾아가는 시련의 과정에서 만나는 캐릭터로, 사랑과 냉담 사이의 이항대립을 중개하면서 안나와 엘사가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는 애초부터 안나와 엘사가 어린 시절에 함께 만들어 놓던 눈사람이었다. 그는 사랑의 현존을 상징한다. 반면, 한스는 거짓된 사랑으로 안나를 기만하고 사랑에는 무관심하며 안나와 엘

표 12. <겨울왕국>의 기호사각형



사를 모두 죽이려 하는 인물로, 올라프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그는 사랑의 부재를 상징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겨울왕국>의 기호사각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호사각형을 구성하는 핵심 의소는 사랑이며 사랑과 냉담의 이항대립을 극복하는 것이 <겨울왕국>의 심층 의미이다. <겨울왕국>은 기본적으로 안나와 엘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안나와 냉담하게 자신의 마법 능력을 해방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엘사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안나가 엘사에게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란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기호사각형의 서로 대립하는 좌우는 안나와 엘사에 의해 표상된다.

한편 기호사각형의 상하 범주는 올라프와 한스에 의해 표상된다. 따뜻함과 차가움이란 감정을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게 표현하는 올라프의 대척점에는 진실한 감정 없이 오직 가짜 감정들만을 표현하는 한스가 있다. 눈사람이면서도 여름을 갈망하는 가장 긍정적 캐릭터인 올라프는 진실한 감정의 충만함을 표상하고, 사랑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오직 권력만을 추구하는 가장 부정적 캐릭터인 한스는 진실한 감정의 부재를 표상한다.

이렇게 도출된 기호사각형에 따르면 <겨울왕국>의 서사는 다음과 같다. 안나와 엘사는 어린 시절에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랑을 억압하게 된다. 결국 엘사는 완전히 냉담한 상태로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난다. 기호사각형의 사랑 → 비사랑 → 냉담의 서사 행로가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이 연쇄에 반대되는 두 번째 연쇄, 즉 냉담 → 비냉담 → 사랑의 서사 행로가 펼쳐진다. 이때 결말부의 안나는 온갖 시련을 겪은 후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영웅이기에 최초의 출발점인 사랑과 마지막 도착점인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 아니다. 이야기의 종착점은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 분석은 겉으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겨울왕국>의 이

야기가 실제로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낸다. 안나가 주인공인지 엘사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은 이제 더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엘사의 캐릭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적어도 그레마스 서사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왕국〉은 안나의 영웅 서사이다. 그것은 안나의 성공으로 끝이 나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이야기이다. 서사구조 안에서 안나와 엘사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안나의 성공은 사실상 엘사의 실패이다. 엘사는 모범적인 여왕이란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꿈꿨고 그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나에게 있어서 엘사의 자유는 문제로 인식됐고 결국 엘사를 제자리로 되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에 엘사가 마법의 궁극적 제어력을 획득하게 된 것은 엘사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나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안나는 자기희생이라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엘사를 착한 마녀로 만듦으로써 엘사가 거부했던 모범적 여왕의 자리에 다시 그녀를 앉힌다. 이제 엘사는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진정한 모범적 여왕이 된 것이다. 안나가 능동적으로 체제를 거부했던 엘사를 체제에 적합한 수동적 인물로 교정한 것이다.

그레마스의 서사구조 분석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심층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이야기의 표면적 메시지와는 다른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이게 만든다. 약간 상투적인 표현을 쓰자면 메시지의 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한 서사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남성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젠더 재현에 있어서 전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란 점은 과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야기가 담고 있는 기본적 이데올로기는 변하지 않았다. 〈겨울왕국〉은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전달하는 체제 순응적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겨울왕국〉은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 지배를 위협할 수 있는 마녀를 가족적 사랑의 힘으로 교화시키면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기존의 억압적 체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건설하려 했던 엘사는 결국 사랑의 힘에 굴복해 다시 체제 안의 역할에 순응하기로 한다. 더구나 여왕으로서 엘사는 여성에 대한 기존의 남성 지배적 담론에 그대로 포섭된다. 왜냐하면 엘사는 이성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자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남성 지배적 담론에서 왕이 되는 남성은 권력뿐만

아니라 사랑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성은 권력을 얻거나 사랑을 추구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여성이 사랑과 권력을 동시에 향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은 악녀이거나 요부이다⁴⁾. 결국 엘사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한 권력을, 안나는 엘사를 귀환시킨 보상으로 사랑을 얻는다. 따라서 〈겨울왕국〉은 남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성을 획득한 여성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결국은 다시 남성의 세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엘사는 치명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권력은 가족 안에서 길들여진 권력이란 점에서 남성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사구조 분석 결과에만 기초한다면 엘사는 남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한 처녀여왕이 됐고 안나는 사랑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여성의 역할에 충실한 체제 순응자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했는데도 〈겨울왕국〉의 심층 의미에 대해 이처럼 완전히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기호학 분석이 주관적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기존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거나 이 논문의 분석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논문에서 그레마스 기호학 방법의 기본 원리에 근거해 기존의 분석들이 잘못돼 있음을 밝혔고, 행위소 모델과 기호사각형을 이용할 경우 〈겨울왕국〉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이에 대한 검증은 다른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해

〈겨울왕국〉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크다. 〈겨울왕국〉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이 논문은 텍스트의 해석 연구들에 주목했다. 특히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논의의 근거로 삼은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분석의 오류들이 발견됐다.

물론 그레마스의 기호학 방법이 수학적 공식이나 과학적 실험처럼 누구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절대적 객관성을 가진 방법인 것은 아니다. 내가 제시한 〈겨울왕국〉에 대한 분석도 여러 가능한 분석들 중의 하나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

4) 훌륭한 군주로 칭송되는 엘리자베스 1세와 선덕여왕에 대한 처녀여왕의 신화, 그리고 사랑과 권력을 모두 추구했기에 악녀와 요부로 불린 수많은 여성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반면, 독일 바바리아의 루트비히 2세처럼 독신으로 지낸 왕은 비정상이거나 광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을 것이다. 하지만 그레마스 기호학 방법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분석을 한다면 분석 결과물들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비판된 세 편의 논문이 제시한 분석은 가능한 분석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잘못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도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그런 비판들을 통해 기호학 연구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주의 기호학은 텍스트의 내적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심층 의미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의미는 내적 요소들의 관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기도 한다. 구조주의 기호학은 텍스트 외부로부터 부여된 의미는 밝히기 힘들다. 홀(Hall, 1973)이 지적했듯이 텍스트에는 선호된 의미(preferred meaning)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수용자 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텍스트의 의미는 단일하거나 고정돼 있지 않다. 사람들은 <겨울왕국>을 보면서 원래 서사구조가 담고 있는 심층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자신의 욕망이나 기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전유할 수 있다. 실제로 관객들은 <겨울왕국>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태영, 김정환, 2015). 관객들은 충분히 엘사에 동일시하면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엘사가 <let it go>를 부를 때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엘사를 기존의 이성애적인 남녀 구분을 전복시키는 퀴어적 인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능동적 해석들을 연구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후 정교하게 다듬어 텍스트 안에서의 젠더 재현이나 젠더 정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 수용자들이 기존의 젠더 구조를 전복시키거나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다.

구조주의 기호학은 텍스트 내부에서 생성되는 심층 의미만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능동적 텍스트 수용과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조주의 기호학의 단점이다.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이런 한계를 잘 인식하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들 중 어떤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레마스의 방법을 이용해 <겨울왕국>을 분석한 논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연구자들이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호학 방법을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학계에서 기호학, 특히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은 질적 연구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쉬운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다른 그레마스는 물론이고 바르트 등의 연구자들이 제안

한 방법들은 석사학위논문을 쉽게 쓰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심지어는 학부생들의 보고 서에서 사용되는 쉬운 방법으로 치부될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정형화된 분석틀을 사용해 “아무리 근거 없는 주장이라도” “설득력 있고 뭔가 대단한 이론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구조주의 기호학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Chandler, 2002/2006, 206쪽).

일반적으로 기호학 연구는 매우 엄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큰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학계에서 발견되는 기호학 연구들의 상당수는 엄밀하고 치밀하기는커녕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장식품으로 기호학 방법을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엉성하다. 특히 텍스트의 심층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은 엄밀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기호학 방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다른 기호학 방법들과는 달리 그것은 텍스트에 내재된 심층 의미를 밝히는 과학적 방법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그레마스의 서사구조 분석 방법을 비롯한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은 엄밀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심층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할 것이며 그런 부정확한 작업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구조주의 기호학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주관적 해석을 하는 수용자가 아니라 텍스트의 심층 구조를 발견하려는 분석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 강은진 (2014). 디즈니 영화에 등장하는 마녀 캐릭터의 기호학적 분석: <겨울왕국>과 <말레피센트>. <어린이미디어연구>, 13권 2호, 33~54.
- 강준수 (2015). <겨울왕국>에 나타난 여성의 젠더 정체성 연구. <인문콘텐츠>, 37호, 173~192.
- 김미숙 (2013). 애니메이션에 있어서의 여성성 표현에 관한 연구 1: 여성 몸짓 언어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9권 4호, 51~76.
- 김보현 (2015). <겨울왕국>에 나타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이야기 형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권 1호, 7~20.
- 김성도 (2002).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태영·김정환 (2015).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장르 관습 변화에 관한 연구- <겨울왕국>에 대한 20대 여성 수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1호, 47~88.
- 선우현 (2008). 문화산업 논리의 구현체로서 디즈니 만화영화: 문제점과 극복방안. <사회와 철학>, 16호, 101~130.
- 성레아·김혜성 (2014).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구조와 의미생성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7호, 197~219.
- 신혜원·백선기 (2014).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젠더 표상과 이데올로기: <라퐁젤>에 대한 그레마스 개념과 모형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권 2호, 98~136.
- 양세혁 (2014). <겨울왕국> 캐릭터에 나타난 두려움과 왜곡된 욕망의 정신역동.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7호, 159~195.
- 오동일·최혜림 (2014).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 담론에 관한 연구: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5호, 613~620.
- 이란·백선기 (2015).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여성 젠더 표상과 다층적 이데올로기- 그레마스 기호학적 분석방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172~205.
- 이윤중 (2014). 마녀와 왕녀 사이: <겨울왕국>의 흥행으로 보는 한국의 오늘. <문화과학>, 78호, 153~171.
- 이준수 (2015).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의 변화: 퀴어 이론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8호, 1~28.
- 이혜원·김민정 (2014). <겨울왕국>을 통해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5호, 107~128.
- 정기철 (2014). 자기성장 관점에서 본 <겨울왕국>. <국어문학>, 57호, 225~250.
- 최유미 (2008).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4권 1호, 135~152.
- Chandler, D. (2002). Semiotics for Beginners, 강인규 역(2006). <미디어 기호학>. 서울: 소명출판.

- England, D., Descartes, L. & Collier-Meek, M. (2011). *Gender role portrayal and the Disney princesses. Sex Roles*, 64(7), 555~567
- Garabedian, J. (2014). Animating gender roles: How Disney is redefining the modern princess. *James Madison Undergraduate Research Journal*, 2(1), 22~25.
<http://commons.lib.jmu.edu/jmurj/vol2/iss1/4/>
- Greimas, A. J. (1986).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PUF.
- Greimas, A. J. & Courtés, J.(1993).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 Hall, S. (1973). *Encoding and Decoding in the Television Discourse*. Birmingham: Centre for Cultural Studies.
- Héroult, A. (1983).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홍정표 역 (2003). <서사, 일반기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투고일자: 2015. 11. 27 게재확정일자: 2016. 3. 21 최종수정일자: 2016. 3. 22

Does Disney's Frozen offer a subversive feminine gender representation?

Discussion based on Greimas's semiotic analysis

Hyungil Joo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criticize the articles that analyzed Frozen by using the semiotic method of Greimas. The study also aims to apply the semiotic method of Greimas correctly to find the deep structure of the narrative of Frozen. The results of the narrative analysis based on the actantial model and the semiotic square show that Frozen is not Elsa's heroic narrative but Anna's one. Because Elsa and Anna are the opposing elements in this narrative, the success of Anna is the failure of Elsa. Frozen does not convey the subversive message about the gender roles by representing an independent and active woman who resists the patriarchal discourse. Instead, Frozen reproduces the conformist ideology by saying that lov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nd that everyone should accept the role given to him/her by the community.

KEYWORDS Greimas, semiotics, actantial model, semiotic square, witch